

경기도,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사업 공모 확대. K-컨벤션 도약발판

경기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육성 공모사업 최대 6,500만 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역 국제회의와 컨벤션 등이 '케이(K)-컨벤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경기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공모사업' 규모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경기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주최기관을 공모한다. '경기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공모사업'이란 성남 의료관광컨벤션, 안산 소재표면기술 컨퍼런스처럼 지역 특화산업을 컨벤션 등과 연계해 경기도 대표 글로벌 행사로 육성하는 것이다.

공모에는 기업, 산하기관 등과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한 31개 시·군 혹은 행사 전문 민간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기반 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신재생에너지산업(수소 등), 인공지능(AI) 등 경기도 유망산업이나 시·군 특화산업과 연관된 주제여야 한다. 행사 규모는 2일 이상 개최하는 국제회의 또는 컨퍼런스 행사로, 외국인 3개국 50명을 포함해

총참가자가 3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산업의 회복기인 만큼 지원 규모를 지난해 4개 행사에서 5개 행사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최대 6천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국내외 홍보비, 관광프로그램, 미팅 시스템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항목을 확대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전문 국제회의 기획자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사전·현장·사후 3단계 컨설팅을 통해 행사의 전반적인 진단과 더불어 국제적인 컨벤션 행사로 육성하기 위한 자문을 받게 된다.

특히 경쟁력 있는 컨벤션을 발굴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국제회의 연계성(UIA, ICCA 기준에 인정되는 회의), ESG(친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가점 항목을 세분화했다.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관은 오는 3월 31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접수해 신청하면 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엔데믹 시대 경기도 마이스 산업의 완전 회복을 전제로 공모 선정 행사를 확대했다"며 "경기도 대표 컨벤션을 육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컨벤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양 국제테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성남 국제의료관광컨벤션 ▲안산 소재표면기술컨퍼런스 등 4개를 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으로 선정해 행사 개최를 지원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환경부장관에게 가뭄대책 등 현안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가뭄 대비 중·장기 대책과 2024년 국고지원 사업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한화진 장관에게 지난해 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어려운 전남도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도에서 건의한 가뭄 대비 중·장기 대책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가뭄 대비 중·장기 대책은 ▲광양만권 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 1천181억 원 ▲여수 국가산단 폐수 재이용 사업 940억 원 ▲보성강 댐 운영방식 개선 ▲완도 약산·금일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863억 원이다.

광양만권 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은 여수의 민간투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이어 순천·광양에서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여수 국가산단 폐수 재이용 사업은 여수산단 여러 대기업의 공장 폐수를 통합 처리 후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성강 댐 운영방식 개선은 보성강 댐 유량 중 농업용수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용수를 상시 주담용으로 보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도록 관리 기관 변경 등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완도 약산·금일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은 완도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신청 시 환경부에서 신속히 승인해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다.

이밖에 2024년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환경부 기본계획에 반영 ▲순천 만정원박람회장 하구로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의 정부 지원 대상지 선정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장관은 "몇 차례의 전남 가뭄 현장 방문을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중장기 가뭄대책을 마련 중으로, 전남도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항구적 중장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도 차원의 대책 추진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 가뭄에 따른 도민 고통을 덜어드리며, 그 밖에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한 국고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세계 3대 국제관광박람회 ITB Berlin에서 '경북'을 선보이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023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 Berlin 2023)에 참가해 유럽 및 전 세계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홍보 판촉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는 세계 3대 국제관광박람회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6대륙 180개국 16만 명이 참여한 유럽 최대 관광박람회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해 세계여행업체 부활의 기지개를 활짝 켜고 있다.

경북도와 한국관광공사의 협업으로 한국관광홍보관 내 경상북도 홍보관 운영 및 상담회 등을 통해 K-콘텐츠 인기로 힘입은 한류 속의 경북여행, 경북이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트렌드와 연계한 경북형 관광상품을 홍보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인에

게 사랑받은 킹덤, 미스터 션샤인, 갯마을 차차차 등 K-콘텐츠 속 경북 한류 촬영지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이 갖는 경북의 많은 관광자원들로 60여개 여행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 주독일한국문화원, 현지여행업계 등을 대상으로 경북 홍보와 더불어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독일연방정부를 방문해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방안 논의와 경북 관광 및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북의 관광자원, 유네스코문화유산, 스포츠 관광시설 등 다양한 자원을 홍보했다.

주독일한국문화원에서는 독일 청년들의 갭이어* 기간을 활용한 경북-독일 연계 관광 활성화와 전시공간을 활용해 하회탈과 한옥을 소개하는 등

문화원과 협업을 통한 경북 관광 홍보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파독근로자 60주년을 맞아 파독근로자 및 한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태권도, 축구 등 교류 행사 및 경북관광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했으며, 재독 독도지킴이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인바운드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울릉도·독도를 소개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독일은 2022년 한 해 동안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나라며, 특히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라며 "이번 독일에서의 네트워크를 통해 K-콘텐츠, 문화 등 다양한 관광요소를 홍보해 독일 관광객들이 경북을 찾을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의심은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경상북도로 기부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풍성한 답례품은 덤으로!

기부지역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시도 / 시군에 기부	기부혜택 ①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② 답례품 증정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선택

기부방법 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www.ilovegohyang.go.kr

기입 기부하기 위택스 결제 답례품 선택

준비물: PC, 휴대폰 계좌이체 또는 카드

※ 위택스 사전가입 필수

기부방법 ②

NH농협 방문 신청

농협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현장 결제 답례품 선택

준비물: 신분증 계좌이체 또는 현금

※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모여진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 생계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문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 054-880-2836, 2838

[기획특집] 안성시의회, 조례 제정 불발로 쓰레기대란



Samsung Triple Camera Galaxy Buddy(으)로 촬영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해 7월 4일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2022.07.13.-07.15.)에 제출했다.

제204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7월 14일(목) 10시 04분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되었다.

상정된 조례안은 주거환경국장에 의해 제안설명 및 부연설명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

시행책무 규정이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우리시 소각장 증설 협의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환경교육시설 설치 요청이 있었으며, 마침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안성시가 선정이 되어 6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환경교육센터는 내년(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이며, 시설준공과 동시에 안성시가 환경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정당(재단법인)조직 구성의 근거 조례를 제정"설명을 마쳤다.

최호섭 위원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면서 정회를 선포하였고, 이

년 지원되므로,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또한, 일단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는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이 되도록 재단의 기능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안성시정에 의해 제출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에 예산수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비 확보 방안 또한 주요내용 제4조 안 재산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및 재단 설립에 관한 관계법령도 규율화 되어 적시되어 있었다.

상정된 조례가 보류후 부결되자 주민지원협의체는 2022년 11월 18일 환경교육재단 안성시의회 조례부결결과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23년 1월 3일 안성시의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후 임정문을 전달하며 재차 환경교육재단 설립 조례를 상정하여 줄 것을 제안(안성시 및 안성시의회)하였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23년 1월 31일 안성시의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일주일이지난 2월 7일 집행부(안성시)에서 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도 하기 전에 철회를 요청하자 다음날 8일 안성시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철회 요청에 동의하는 회신을 보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근무하는 환경감시요원들은 환경교육재단 조례안의 상정 철회가 결정되자, 지난 2월 13일부터 생활쓰레기 반입제재 기준(2008.2.1.시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반입된 소각용 쓰레기 봉투를 파봉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를 소각장 입구에 야적해 놓고 진입차량에 반입정지등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였다.

지난 2월 20일부터는 모든 비소각용 쓰레기의 반입을 거부하면서 2월 21일부터 소각로 가동 중지로 안성시의 쓰레기 대란이 시작되었다.

이후 주민지원협의체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2020년 9월 21일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에 명기한 ▶안성시 "협력사항"-쓰레기 감량을 위한 환경교육에코센터 설치, 운영.

▶안성시의회 "협력사항" 폐기물관리 정책제정, 조례제(개)정, 민원해결의 중재 및 소통,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활동, 시에서는 재단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재단설립 이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5명인건비 및 경비) 250백만원 예산이 매

활동을 강화한 것뿐이며, 소각장시설에 소각물(생활폐기물)반입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2020년 8월 27일 주민지원협의체 최종 확정된 협의의견 ① 자원회수시설(소각장) 80톤 증설 최종확정 의결에 대해 재검토 및 철회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약칭: 폐기물시설축진법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의 규정하는 지원협의체는 법에 의하여 규율된 협의체로서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각 지자체 별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영향지역 즉 안성시 보개면 신안 동안, 복좌, 북평, 오두, 신안신곡,남평 상남마을 등 6개리 주민지원사업에 국가에서 동법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①②③④⑤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항을 안성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여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만 지난 7월 1일 이후 여.야의 협치는 사라지고 오직 정쟁만을 위한 줄뿌리 민주주의가 되어 소통으로 풀린 북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민들에게 쓰레기 대란으로 극과 극의 대치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금번 사태에 대해 안성시 담당 주무관은 주민지원협의체 및 시의회와 계속 협의중이라는 메아리만 들릴뿐이다.

조례안 철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안성시의회는 진정성 있는 답을 줄수 있는 분들은 모두 부재중이었으며 의정 및 의사팀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의 제출일과 철회일을 표기한 문서로서 대체하였다.

한편,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팀은 소각장 운영 및 위탁 관리를 2016년 7월 1일부터 한라산업개발로부터 인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이사장 이정찬)에 의하면 "이번사태도 코로나19로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횟수가 늘다보니 분리수거와 종량제 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 몸이 배지 않아 더욱더 심각하게 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재활용 포인트 보상제를 실시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특히 농협하나로 마트와 품목별 업무협약(MOU)을 통한 재활용배출지도를 통한 지난해 22개업체와 연간 정기 배출량 판매계약을 맺고 지난해 1,300만원에 해당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보상해주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tab153715@naver.com



Samsung Triple Camera Galaxy Buddy(으)로 촬영



Samsung Triple Camera Galaxy Buddy(으)로 촬영



Samsung Triple Camera Galaxy Buddy(으)로 촬영



"노을 맛집 찾아 시흥투어 해볼까"

시흥시, 18일부터 시흥시티투어 시작

시흥시가 이달 18일부터 시흥시티투어를 재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지 4년 만이다.

고형근 경제국장은 1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시흥시티투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1월까지 2억여 원을 투입해 120회의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관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9년 시흥시티투어를 시작했다. 경기도 유일의 내만형 갯골을 품은 시흥갯골생태공원, 대표적인 연꽃 관광지인 연꽃대파파크, 명품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오이도 등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하며 이용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 시흥시티투어는 대상층 확대를 위해 코스 구성을 다양화하고, 코스 내에서도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사당역을 출발해 시흥시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하고 다시 사당역에 도착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대중교통 연계성이 낮은 시흥시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 관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정기코스는 전 연령대를 위한 대중적인 코스로, 해설사가 동행해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는 가이드형 투어로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에는 오이도 내 주요 관광지를 돌며 황금 노을을 감상하는 '오이도 선셋 코스'를 운영하고, 일요일에는 전당연 1) 재배의 시초인 판곡지와 300년



역사를 간직한 호조벌 등을 둘러보는 '판곡지 연꽃 코스'를 운영한다.

수시코스는 환경, 공동체 등 테마별 코스와 시흥시 행사, 축제 등을 연계한 이벤트형 코스로 구성했다.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환경 코스'를 필두로 관내 방문 단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맞춤형 코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여행 코스'가 마련돼 있다.

거점마다 연계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시는 갯골생태공원의 소금길 명상, 갯골습지센터 방문, 소금놀이 체험을 비롯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오이도 선사 유적공원, 오이도 박물관 투어, 시화호 주변 탐방 및 플라크톤 관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봄 해당화 꽃차와 꽃 식초 만들기, 여름 해수욕장과 거북섬축제 체험, 가을 시흥갯골축제 참여 등 계절 특화 체험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특히 시흥시티투어는 지역 연계 경험이 풍부한 관내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주도 사업이다. 시티투어 진행 시 참여자 인솔, 관광 해설, 예약 상담, 체험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코스 내 물왕호수와 오이도 등 관광지 주변 맛집 탐방으로 관광객 먹거리 수요를 충족하고, 자율 식사 이용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고형근 경제국장은 "향후 경기서부권 6개 도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흥시티투어 관련 코스 발굴에도 주력하겠다"라며 "시흥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쉽고 여유를 드리고, 지역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10년 만에 인천 오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5월 송도서 열려

주제별 오프라인 체험부스, 온라인 메타버스 체험활동 등 다양한 볼거리 펼쳐져

인천광역시시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여성가족부와 인천시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인천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관한다. 인천에는 2013년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개막식(청소년의 달 기념식, 축하공연 등), 체험활동(인천존 등 주제별 오프라인 체험부스, 온라인 메타버스 체험활동), 참여활동(청소년활동아리 공연, 학교 연계 프로그램, K-유스 탤런트 경연대회, 7컷툰 공모전 등), 강연(멘토특강, 청소년 강연), 폐막식(우수부스 및 참여활동 시상 등)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체험부스의 경우 각 시도 참가기관의 다양한 주제관과 인천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인천존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4일 18시까지 청소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험부스 운영단체를 모집 중이다. 인천 소



제 기관일 경우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청소년들이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하면서 10년만에 찾아온 전국 단위의 청소년 행사가 인천 청소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코

로 19 이후 인천에서 개최되는 오프라인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인 만큼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발산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와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한 인천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이천시,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이천시는 2023년 경기도 공모사업인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품격 있는 야간경관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16개 시·군에서 21개소를 신청, 야간 경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이천시를 포함한 총 5곳을 선정했다.

이천시는 '낮보다 아름다운 안흥지의 밤'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 대상지인 안흥지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경관 조명, 시설물 정비, 애런징 투광등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및 야간경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안흥지는 빛꽃명소로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 되려니위 치한 장소가 선정되어 기쁘다" 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편안한 명품야경을 제공하고, 이천을 찾는 방문객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더 크게 들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2023. 3. 9. (목) ~ 3. 14. (화) 6일간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https://council.yongin.go.kr>

화성형어린이집, 올해 16개소에서 운영

보육교사와 조리사 인건비, 운영비, 시설 개선 등

화성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화성형 어린이집'이 올해 총 16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 첫 도입된 화성형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교사에게는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급식과 다양한 체험기회, 보호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로 보육교사, 학부모, 원아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다.

이에 지난해 8개소에서 올해는 2배 늘어난 총 16개소가 화성형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상 어린이집은 대방다동(새솔동), 르파비스(동탄7동), 반도봄빛(동탄8동), 블루키즈(진안동), 송산수노을(새솔동), 아기별(봉담읍), 아이조아(동탄8동), 양우해맑은(남양읍), 양지사론(봉담읍), 은솔(동탄7동), 이화(동탄7동), 자이숲(진안동), 풍림(향남읍), 피우스(동탄6동), 행복한푸르지오(동탄5동), 화성향남6단지부영사랑으로(향남읍) 총 16개소이다.

이들 어린이집에는 담당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조리원 추가 수당 등 인건비가 지원되며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가 공공급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연 1회 실내 공기질 검사비용, 교재 교구 구입비, 시설 보수비를 비롯해 매월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에게 교육 및 멘토링도 지원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공보육시설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영양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농업인대학 귀농귀촌과정 운영



영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순조로운 농촌 정착과 농업지식 함양을 위해 농업인 대학 신입생 15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과정을 운영한다. 귀농귀촌 과정은 3월 1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총 20회 100시간에 걸쳐 농업의 기본 및 농산물판매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올해 농업인대학 과정에서 귀농귀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정을 개설했으며, 커리큘럼에는 신규농업인 알아야 할 토양관리, 농산물 판매전략,

병해충 관리 등 신규 농가가 농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지식이 포함됐고, 특히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예정이다.

이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9기 농업인대학 귀농귀촌과정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귀농귀촌으로 영양군 농업인으로 튼튼히 뿌리 내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군산립조합,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시행

영덕군이 매년 추진하던 숲가꾸기 사업이 지난 1월 영덕군산립조합과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설계단계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하게 된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산림조합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산림사업의 상생을 실현하고, 산림조합이 보유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경북도 내 14개 시·군과 산림조합이 동참하고 있다.

영덕군은 올해 숲가꾸기사업에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713ha의 산림에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 공익림 가꾸기 등의 사업을 영덕군산립조합에 위탁

해 추진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영덕군산립조합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산주의 동의, 사업대상지 확보, 사업 발주 및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게 되며, 관내 산주들은 숲가꾸기사업을 희망할 시 산림조합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원동 산림과장은 "이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산림조합과 함께 산주별 산림경영계획을 세심히 반영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한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주들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다.

장문화/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2030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한 글로벌 융합인재양성지산학협력논의

13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에서 지산학 협력토론회 '오픈캠퍼스 미팅' 개최

부산시는 오늘(13일) 오후 2시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에서 '오픈캠퍼스 미팅'을 열고 글로벌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오픈캠퍼스 미팅'은 박형준 시장이 직접 부산지역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 기업, 학생들과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 대한 지·산·학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협력토론회로, 박 시장의 핵심공약인 지산학협력을 위해 취임 후 2021년 6월 동의과학대학교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총 11번째 미팅을 이어 오고 있다.

오늘 행사는 부산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각해지며 지역대학 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어 및 통·번역 분야에 특화된 부산외국어대학의 장점을 활용하여 산업관계자와 머리를 맞대어 함께 실질적인 지산학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글로벌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건설,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교류 활성화, 아시아 창업도시 구축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지산학 협력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아시아 스타트업 투자, 창업교육 및 정보기술(IT)과의 접목 방안, 양질의 일자리 중대 경쟁력 제고 방안 등 글로벌 융합인재양성을 위해 폭넓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사전행사로 '태국 하나스틸' 이희구 대표(부산외대 태국어과 92학번 동문)가 온라인으로 해외창업 성공사례를 설명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진다. '태국 하나스틸'은 2007년 태국 내 자동차 액세서리 관련으로 창업하여 현재 연 400억 원의 매출을 거두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산학교류 확대 및 부산외대 태국어과 학생의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하나스틸을 제4호 '부산외대 글로벌협력

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부·울·경 유일의 통역번역대학원이 있으며, '2023년 QS 아시아 대학평가'* 부산지역 사립대 3년 연속 1위, 해외 취업률 9년 연속 전국 1위 등 대학 수준과 취업률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대학"이라고 평가하며, "외국어 분야에 특화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소중한 자산으로, 시는 부산외대를 비롯한 기업·기관들과 협력하여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물론, 글로벌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지난 3월 8일 부산이 정부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지역의 대학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부산형 지산학 협력 혁신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픈캠퍼스 미팅 행사를 통해 부산지역 대학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으로, 앞으로도 부산 소재 20여 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송종진/기자

통영시,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순회점검

통영시는 '안전이 최우선, 안심하고 일하는 통영'을 안전·보건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난 3월 9일부터 8주간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대상 29개 부서의 80개 현업업무 사업장과 시민재해대상 시설물 7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사업장 순회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서 안전·보건관리자와 사업장 관리자 및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유해위험 요소 확인,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 점검,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면서 반복·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작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가시적인 중대재해예방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자·근로자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함께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점검은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울진군, 제18기 울진녹색농업대학 개강

울진군은 울진 농업 대전환과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리더 양성교육인 '제18기 울진녹색농업대학'을 운영한다.

이달 13일 표고버섯반을 시작으로, 15일 한우반, 23일 농산물가공반을 개강하며 올해 입학생은 총 103명이다.

표고버섯반은 재배기술 입문에서부터 병해충 및 재배환경 관리, 한우반은 비육 사양관리 및 인공수정, 농산물가공반은 농식품 가공 창업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전문 이론과 실습 과정의 교육을 진행한다.

황중호 농업기술센터장은 "지역 핵심 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두고 농산업 현장을 활용한 교육 등 1년 과정을 알차게 구성했다"며 "녹색농업대학에 입학한 교육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GOOD AIR CITY 인증도시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예천군, 곤충산업 핵심 거점지로 우뚝

미래 산업 중 하나인 곤충산업 발전 위해 지속적인 투자

예천군은 곤충산업 특구로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며 명실상부 '곤충산업 핵심 거점지'로 우뚝 서고 있다.

지난해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림식품부 '곤충산업 거점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8월 6일부터 15일까지 'SEMI 곤충엑스포 2022 예천곤충축제'를 개최해 2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104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했다.

특히, 약 90억 원을 투자해 곤충생태원과 AR·VR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신규 콘텐츠를 도입하는 등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전적인 행정을 추진했다.

올해는 꿀벌자원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24억 원 사업비를 들여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를 건립해 꿀벌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억 원 예산을 들여 곤충생태원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실내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카페와 휴게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곤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곤충산업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식용곤충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

영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곤충은 작지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특히 곤충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미래산업 중 하나인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전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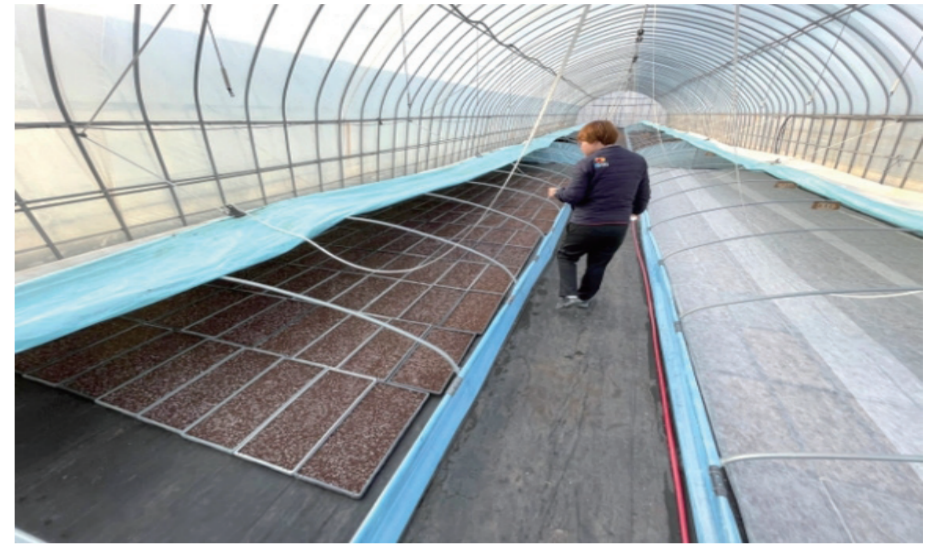
청송군, 고추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 지원

2023 고추종자대지원사업, 자가육묘 농가에 큰 호응!!

청송군은 고추 자가육묘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물가 시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고추종자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추종자대 지원사업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 고추재배를 희망하는 자가육묘 농업인을 대상으로 0.1ha부터 최대 1ha까지 고추종자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추 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경쟁력을 높이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약 102ha 면적에 식재 가능한 종자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관내 고추 재배면적의 18.6%에 달한다. 또한 자가육묘를 하는 농업인 하우스에 파종 및 육묘기술 지도를 통해 좀 더 건전한 고추 모종을 만들 수 있도록 농업현장 기술 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종자구입비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가 점점 더 비싸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청송고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시민 감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 소확행 사업 발굴 나서

13일 경주시 청년센터에서 '소소한 경주 기획단' 발대식 가져

경주시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해 줄 소확행 사업 발굴에 나섰다.

시는 13일 경주시 청년센터에서 부서별 MZ세대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소소한 경주 기획단' 발족했다.

기획단은 시민 감동은 작은 것에서부터 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기존 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민편의 사업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담당한다.

기획단은 먼저 소규모 예산, 불편사항 해소 등의 선정 기준을 정해 소확행 사업 리스트를 정비한다.

이어 4개 그룹을 구성해 정기적 회의를 비롯해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소확행 사업 아이디어를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다.

시는 △여름철 횡단보도 햇빛 가림막 △버스 승강장 발열 의자 등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소확행 프로젝트가 확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의 제안 단계부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참여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소소한 경주 기획

단이 시민들의 행복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정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윤타용/기자

울릉군, 영농철 이전 모노레일 전농가 순회점검 실시

모노레일 및 농기계 순회점검으로 농업인 부담경감과 만족도 증폭



울릉군은 3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농업용 모노레일 및 농기계 등 마을별 순회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기계 순회점검은 울릉군 전 농가에 보급된 농업용 모노레일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며, 특히 모노레일의 소모성 부품인 점화플러그, 엔진오일, 연료코크 등을 무상으로 교환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

켜 주고 농업인들의 영농 만족도를 높여 줄 계획이다.

또한, 모노레일 순회점검과 병행하여 엔진의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관리요령 교육과 현장실무안전교육으로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농업에 없

어서는 안 될 농업용 모노레일에 대하여 전 농가에 순회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적기 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농업인들의 영농고충을 경감하는 한편 농작물의 안정적인 수송과 고부가가치화로 지역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현중.조강제/기자

울릉군
ULLEUNG-GUN

새희망! 새울릉!

봄여행, 즐길준비 되셨나요?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봄여행

천혜의 자연과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울릉도·독도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낭만과 즐거움을 느껴세요!!

전북도, 독일에서 K-전북관광 활성화 초석 다져

독일 한국문화원과 양해각서 체결, 24년 현지 홍보행사 성공 개최 기대감

전북도는 9일과 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및 작센 자유주 드레스덴에서 문화관광 교류협약 체결과 관광설명회 개최 등 K-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홍보를 위해 독일을 찾은 K-전북관광홍보단은 조보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대표)를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전북홍보관을 운영하고 여행사 상담회, 전북관광 워크숍 등 다양한 현장 마케팅을 펼쳤다.

또한 9일과 10일에는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드레스덴시청, 드레스덴시 관광공사 등 주요기관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와 협약 체결 및 전북관광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9일 조 부지사는 독일 베를린 양상근 한국문화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북의 전통공연, 특산물(보석, 홍삼, 청차 등), 관광자원 등을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2024년 베를린에서 개최될 '전북문화관광 홍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다지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다음날인 10일에는 클럽슈 드레스덴시 부시장과 미제르 드레스덴 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문화교육관광관계자 간담회에서 양 도시의 관광자원 소개와 경제, 교육 등 분야별 협력사업 논의와 더불어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의향서를 교환했다.

또한 이날 드레스덴에서 작센주 관광업계와 여행사 및 언론사와 드레스덴시 주요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K-전북관광 설명회'를 조 부지사의 독일어 환영인사로 시작해 전통한지 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와 전북의 관광자원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가졌다.

독일 참가자들은 전북체험 여행상품과 2023 새만금 세계 스퀘어트 캠프 버리 참여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후문이다.



조보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독일인은 80% 이상이 해외여행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집중 홍보 국가로 선택했다"며 "이번 독일 홍보를 통해 한류의 본고장 전북을 널리 알린만큼 관심있는 해외관광객이 실망하지 않을 전북만의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익산시, 미래 농정 정책자문단 '출범'

이은미 전북그린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외 6명 위촉

익산시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농정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미래 농정 정책자문단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미래 농정 정책자문단은 그린바이오, 농식품, 농업법, 동물용의약품, 농촌개발, 친환경농업, 농업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2년 동안 활동한다.

자문단에는 ▲이은미 전북그린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권대영 호서대학교 교수 ▲사동천 홍익대학교 교수 ▲김일원 전북대학교 교수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태근 농업법인회사 휴산림 회장 ▲황만길 군장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는 정책자문위원 7명이 참석해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산업 육성 전략과 익산 그린바이오 정책 연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자문단은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농업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의 농업정책이 선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자문단의 전문적인 식견이 지역 농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체 명예농업시장은 "지역 농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을 때 살 수 있는 농촌, 모두가 행복한 익산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경륜과 지혜를 갖춘 정책자문단과 함께 농업발전과 농업인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정책자문단이 구성됐다"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농업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익산시, 상수도 시설 봄맞이 환경정비

익산시가 지역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상수도사업단은 10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 신흥정수장 둘레길과 정수장 정문에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입구까지 500미터 구간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신흥정수장 둘레길은 수변 주변을 둘러서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자연을 벗 삼아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대간선수로 주변 역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구간으로 이번 정비 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됐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물 관리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경진 상수도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신흥정수장을 둘레길을 포함해 상수도 시설물 주변 환경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전주시, 일하는 즐거움으로 노후생활 활기차고 건강하게!

전주시, 13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2023년 노인사회활동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전주시 노인들이 일하는 즐거움과 소득 창출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됐다.

전주시와 전주시시니어클럽은 13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올해 공공형 노인사회활동에 동참할 참여자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공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여자의 결속력을 향상시키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게 성실하게 수행해갈 것을 선언하는 헌천 구호와 선언문 낭독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안전한 활동을 돕기 위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 시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공공형(공익활동) 9700명과 사회서비스형 2327명 등 총 1만 3128명의 어르

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의 경우 △학교스쿨존 및 급식지원 △공원·하천 환경개선활동 등 11개월 동안 1일 3시간(20분 활동, 10분 휴식), 주 3일, 월 10일 조건에 매월 27만 원이 지급된다.

만65세 이상(일부사업 만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보육시설과 재가시설 및 공공전문 서비스분야에서 일하게 되며, 10개월 동안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조건에 매월 최대 71만2000원이 지급된다.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의 경우 사업 운영 수익률과 고용된 기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소득도 창출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우형(우림스님)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전주시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 노인들이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참여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일 평생 쌓아온 경륜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토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전주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 달라"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0일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농업인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다.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은 지난 2월부터 신청공고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접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신청된 예산은 담당부서의 현장 확인 및 검토 후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되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등 3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예산신청(안)에 대해 예산신청 내용의 타당성, 농정방향의 적합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 청년농촌 보금자리조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조림·숯가꾸기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총 61개사업에 2,241억원이다.

이번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3월 중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심의를 거쳐 2023년 하

반기에 최종 사업이 확정된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책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중점 사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도시 위상확립으로 김제시를 대한민국 1등 농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나주시 고항사랑기부제



평택시청 볼링팀 선수 국가대표·국가대표상비군 발탁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와 국가대표상비군에 발탁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경북 구미시 북캄스포츠클럽센터와 대구광역시 에니원볼링장에서 열린 '2023년도 볼링 국가대표선수 선발 결승전'에서 손혜린 선수는 48개 임 종합 11,140점(평균 232.1점)을 기록해 국가대표선수 8명을 선발하는 종합경기에서 3위에 올라 국가대표에 발탁됐고, 양다솜 선수는 종합 10,782점(평균 226.2점), 오누리 선수는 종합 10,726점(평균 223.5점)을 기록해 국가대표상비군에 선발되어 지난 2월 대한볼링협회에서 주최한 우수단체·선수·지도자상 수상에 이어 평택시청 볼링팀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국가대표선수에 발탁된 손혜린 선수는 "태극 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고, 더욱 훈련에 정진하여 대한민국을 빛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좋은 성적으로 우리 평택시를 빛내고 있는 선수들에게 감사드리고, 국가대표로서 평택과 대한민국을 널리 알려 우리 시민이 곧 세계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격려



와 응원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볼링, 하키, 역도, 요트, 레슬링, 장애인 유도, 장애인역도팀에 현재 국가대표선수 16명(볼링 1, 하키 7, 역도 1, 레슬링 1, 장애인유도 3, 장애인역도 3), 국가대표상비군선수 8명(볼링 2,

요트 6)을 포함 총 53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며 지난 2022년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 148개, 은메달 34개, 동메달 36개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둬 평택시의 위상을 널리 드높이고 있다.

양시현/기자

칠곡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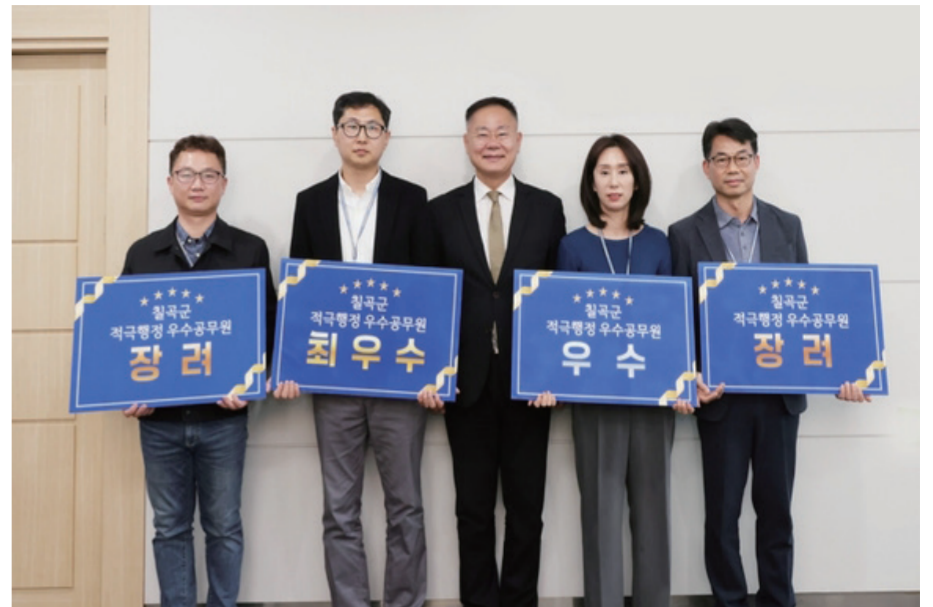
칠곡군은 적극행정 사례를 추천받아 실적검증과 자체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2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김도환 주무관은 50차례 이상의 현장 출장과 10차례 이상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했다.

우수에 이름을 올린 장재영 주무관은 '인문경험의 공유지'라는 비전으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충실히 준비해 문제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5년간 최대 1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장려로 선정된 전상락 주무관은 건축 전문가(건축, 토목, 전기)의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공사장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칠곡군 '건축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에 기여했다.

장려로 선정된 박병수 팀장은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재산세(토지분) 부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주차 공간 확보



를 위한 무상임대 계약을 통해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했다.

칠곡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4명에 대해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 시 가점,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재욱 군수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칠곡군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송광삼/기자

구례군, 제22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수상작 발표

4월 21일 한국압화박물관에서 시상식 개최

전남 구례군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회 대한민국압화대전에서 김화선 작가의 '외갓집 뒤안'이 종합 대상에 수상했다.

올해 대한민국압화대전에는 국내전(압화, 보존화), 국외전 2가지 분야 3가지 부문으로 12개국이 참가해 총 348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압화분야 국내전은 종합대상 1점, 대상 4점, 최우수상 6점, 우수상 15점, 장려상 20점, 특선 45점으로 총 90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국외전은 대상에 중국(광저우, 맹번옥)의 '사슴의 울음소리(Deer crowing)'를 비롯해 40점의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보존화 분야 대상은 김현화 작가의 '여름 숲의 길목'이 선정됐으며, 최우수, 우수, 장려, 특선 등 20점이 선정됐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진행했으며, 공정성 강화를 위해 종합대상은 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화면의 구성과 예술적인 표현을 잘 살린 우수한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라며



"제작하는 시간이 고귀함을 인식하며 작가들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4월 21

일에 열리며, 수상 작품은 3월 17일부터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에 연중 전시된다.

김성현/기자

익명의 기부 천사, 일요일 새벽 수원시청 현관 앞에 컵라면 36상자 두고 사라져

"수원시 산불 감시 담당 공직자들이 드시고 힘내셨으면 한다" 편지 남겨

"수원시 산불 감시 담당 공직자들이 잠시 여유가 있을 때 드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수원 광고 주민'이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가 12일 새벽, 수원시청 본관 앞에 컵라면 36상자와 편지를 두고 사라졌다.

기부자는 편지에서 "얼마 전 화재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수년 전 광고산에서 발생한 화재 때 수원시 공직자들의 엄청난 노고를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봄, 가을 산불 감시를

하는 수원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산불 감시로 근무하시는 수원시 공직자들을 위해 너무도 약소하지만, 간식으로 컵라면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모두가 쉬는 일요일에도, '천사'들의 따뜻한 마음은 쉬지 않는다"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하동에선 화마에 산림감시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에는 김제 주택 화재

에서 소방관 한 분이 인명을 구조하던 중 순직했고, 우리 수원에서도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시민 한 분이 희생되었다"며 "어느 때보다 산불과 화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요즘, 모두가 쉬는 일요일 새벽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수원은 빛나는 시민 여러분이 있어 만들어짐을 절절히 느낀다"라며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영/기자

남원시, KT스카이라이프 방송복지물품 기부 받아

남원시는 3월 13일 남원시청 2층 시장실에서 KT스카이라이프와 방송복지물품 기부식을 가졌다.

남원시는 올해 KT스카이라이프 사회공헌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됐고, 선정 대상은 총 20곳으로 의료급여, 차상위 해당의 치매환자 취약가구 17곳과 시설 3곳이 9천만원 상당의 방송복지물품을 받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매년 방송시청 환경이 열악하거나 TV로 문화와 정보 습득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UHD TV와 위성방송 장비를 기증하는 '사랑의 안테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기부식을 통한 기부품은 55인치 UHD TV와 스카이라이프 방송서비스 평생 무료시청권으로, 방송복지지원을 받게 되어 저수

득 치매어르신과 복지시설 이용자가 보다 좋은 환경의 방송시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치매어르신 복지를 위해 이번 기부를 해준 KT스카이라이프에 감사드리며, 취약한 치매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2023년 1월 1일 내 고향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

최대 합산 500만원까지
(다른 지자체 합산)

기부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초과시 16.5%)
-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답례품

- 예천장터(www.ycjang.kr) 쿠폰
- 예천사랑상품권
- 삼강주막 캠핑장 할인권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재)제천문화재단, 올해 온세컬쳐마켓 운영...참여 셀러 모집



(재)제천문화재단이 플라마켓, 먹거리부스, 문화예술체험존 등 문화와 예술을 결합한 지역문화 플랫폼 '2023 온세컬쳐마켓'을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세컬쳐마켓'은 문화·예술 산업을 결합한 마켓이다. 음악, 춤 공연 등 문화활동과 핸드메이드 제품, 농산물, 먹거리 부스 등 지역 내 생산품 소비의 장이 융합된 복합 문화플랫폼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

올해도 4월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6회차에 걸쳐 매달 마지막 금, 토요일 2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의림지, 역사박물관, 청전동 그네공원 등 시 유명 관광지에서 개최했다.

특히 4월 첫 행사는 청풍벚꽃축제

와 연계해 시민 및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재단은 플라마켓 참여자를 24일까지 30명 내외 모집한다. 개인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한 판매자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수공예, 일반상품, 중고물품, 먹거리, 지역 농·특산물 등으로 제천시 지역 업체가 우선 선정된다.

김호성 상임이사는 "온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한다는 의미에 맞게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문화·예술 산업을 결합해 향후 지역 내 융복합 문화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울시, “봄향기가득한삼청각취한당에서 창작예술작품 전시해보세요”

자연과 한옥이 어우러진 서울시 대표 전통문화명소인 '삼청각(성북구 대사관로 3)'은 올해 시민개방공간인 '취한당'에서 작품을 전시할 대관 희망자를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삼청각은 지난해 6월, 50년 만에 전면 새 단장(리뉴얼) 후 개관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시민개방공간을 대폭 확장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삼청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직후 남북적십자 대표단의 만찬 장소를 위해 건립되어 1970~80년대 국가 귀빈 접대 장소로 운영된 대표적인 시설이다.

서울시는 삼청각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나라 '한옥의 미'를 살리고 본체 및 별채의 폐쇄적 내부 공간을 확장하여 개방성과 가변적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현재 본채인 '일화당'은 전통공연·연희장·한식당으로 운영 중이며, 별채는 전통혼례를 위한 '청천당', 기업행사를 위한 '천추당'이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삼청각 취한당'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상시 다채로운 작품전시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명소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참신하고 유망한 개인 작가 및 예술단체들의 상반기 대관신청을 받는다.

'그자 구조'의 취한당은 2개의 실로 연결되어 있으며, 첫 번째 전시실은 77㎡, 두 번째 전시실은 26㎡이다. 전시대관은 두 전시실을 동시에 전시 가능한 개인작가 또는 예술단체 누구

나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대관 일정은 4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대관기간은 1주에서 4주까지 가능하다. 대관료는 공공요금(수도·전기·도시가스)을 포함한 1일 1만원이다.

취한당 내 부대설비로는 조명·음향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벽면 스크린·오디오세트·전시 와이어 등의 물품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전시 가능한 장르는 회화(동양화, 서양화, 민화, 펜화 등), 공예(도자, 자수, 목·금속·유리공예, 복식 등), 사진·영상 등 작가의 창작작품만 가능하며, ▲ 취한당의 공공성과 품위 손상 및 왜곡시킬 우려가 있지 않고, ▲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 소음, 소란, 선동 등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 및 관람에 불편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023년 삼청각 취한당 전시대관 신청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삼청각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청각 대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삼청각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대관 규정'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의 사유로 취소를 희망할 경우, 취한당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삼청각 대관 담당자에게 취소 요청하면 100%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취한당은 전시 전용공간으로 처음 활용되어 성북구립미술



관과 협업해 '소박한 축전(祝電)', '생명의 바람:조문자'의 기획전을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한국화가 서세옥·조각가 최만린·성북구 대표 화가 조문자 등의 서예·동양화·서양화·조각품 등 60여 점을 전시한 지난해 전시 결과, 짧은 전시 기간임에도 다양한 관람객이 방문하여 높은 호응을 유도한 바 있다.

덧붙여 2023년 삼청각에서는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삼청각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문화강좌 나눔행사들을 마련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전통악기·판소리·민요·사물놀이·연희 등의 전통문화 공연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구와 민요 등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강좌와 함께 '한국전통 궁중음식 및 다도강좌'·'와인과 음식문화' 등 다양한 식

문화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 200명을 초대해 식사대접과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여름에는 전국 8도에 있는 우리술을 복원·홍보하는 '우리 술 대축제', 한가위에는 송편 만들기 체험 등도 진행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복합산의 산세와 한옥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는 삼청각이 지난해 재개관한 이후,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새로운 문화명소로 떠오를 것"이라며 "아름다운 한옥에서 자신의 예술성을 뽐내고 싶은 많은 예술가들의 대관 접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문화재단,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개소식

경기문화재단-경기도-고양특례시-서울특별시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를 오가던 등재 TF팀은 프레스센터에 독립 사무실을 열고 '등재추진단'으로 개편,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3월 8일 열린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개소식에는 서울시 김홍진

문화재관리과장, 경기도 홍성덕 문화유산과장, 고양시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이지훈 원장이 참석했다.

3개 유산이 하나의 단일 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에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만 4개 기관이 하나로 뜻을 모아 등재추진단 사무실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등재추진단 발족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밝히는 연구진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은 유산별로 각기 따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2021년 '통합등재추진 실무협의회'에서 2022년 '통

합등재 TF팀' 운영으로 구체화되고 2022년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됨으로써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이지훈 원장은 "여러 기관이 함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기준에 부합하는 유산의 보존관리체계의 마련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유산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다"고 밝힘과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15개 세계유산에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이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영/기자

속초시립박물관, 보광사 개산 4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시 승격 60주년 기념, 보광사 소장 다양한 문화유산 시민에게 선보여



속초시립박물관은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우리 지역 전통문화유산 초경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금강산 화암사 안양암에 연원을 둔 보광사 개산 400주년과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보광사가 소장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불상, 마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는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강원도 유형문화재)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2010년 정밀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복장 발원문을 통해 승록대부 나업의 부인 한 씨가 남편의 극락왕생을 위해 조성했다는 아

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불상 안에서 발견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복장유물들과 현왕도(강원도 문화재자료), 신장도, 불교전적 등 보광사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도 관람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박물관에서 전시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보광사 회주석문 스님을 비롯한 신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속초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시민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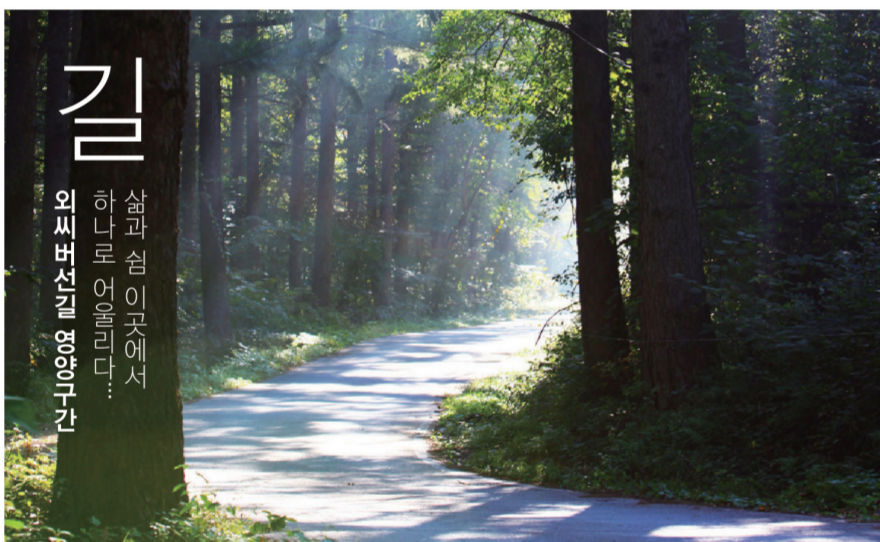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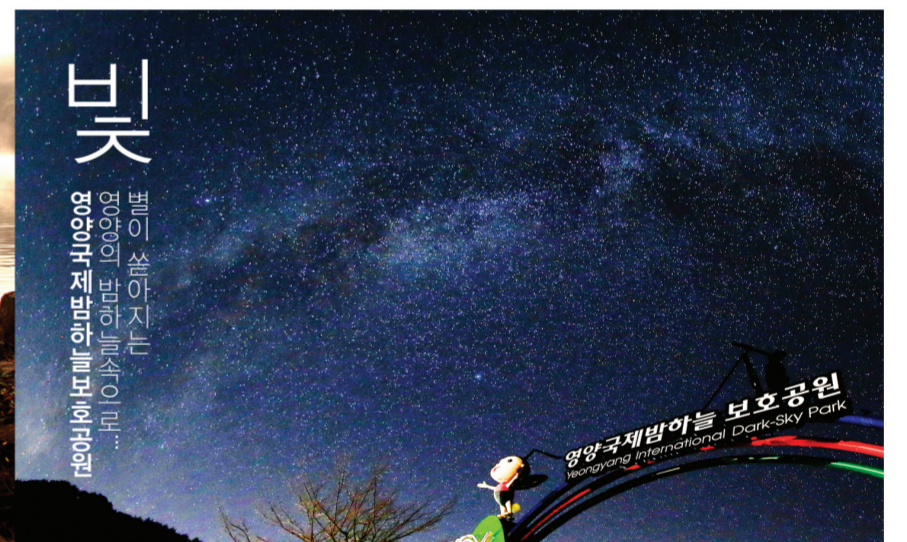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역사적으로 영영하는



물

영양이 흐르는
영양이 흐르는
영양이 흐르는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밤하늘을
영양이 밤하늘을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적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